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옛 선비들의 유배생활

이 승 하
중앙대학교 교수

1. 유배가사는 어떻게 하여 탄생케 되었는가
2. 신춘문에 당선작에서 시작되는 국내의 유배시
3. 2000년대 유배시의 면모
4. 한국 유배시의 앞날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옛 선비들의 유배생활

이 승 하
중앙대학교 교수

1. 유배가사는 어떻게 하여 탄생케 되었는가

유형이라고도 하고 귀양이라고도 하는 유배는 왕조 시대 때 죄인을 먼 변방이나 섬으로 보내 머물게 하는 형벌이다. 유배지는 수도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척박한 곳이라 이 형을 받은 이는 유배지에서 손수 먹을 것을 재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유배지에서 환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달픈 나날을 보내야 했다.

유배는 대개 이렇게 진행되었다. 의금부나 형조를 통해 유배형을 받으면 도사 또는 나장들이 죄인을 지정된 유배지까지 압송하여 그 고을의 수령에게 인계하고, 수령은 죄인을 보수주인(保授主人)에게 위탁한다. 보수주인은 그 지방의 유력자로서 한 채의 집을 배소(配所)로 제공하고 죄인 감호의 책임을 진다. 죄인의 생활비는 그 고을 부담의 특명

이 없는 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가족의 일부 또는 전부
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 개인이 유배를 가더라도 가족
이 함께 고생하게 마련이었다. 죄인은 형 해제의 사령(赦令)이 내리오
지 않는 한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야 했다.

유배를 가 있는 사람은 해제 사령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야 했으
므로 답답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귀양지에서 지은 가사
작품을 흔히 ‘유배가사’라고 한다. 우리나라 시가문학사상 최초로 유
배를 다룬 것은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지은 향가계 여요 「정과정(鄭瓜
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때는 유배가사가 쏟아져 나온다. 조
위가 무오사화(1498) 때 전라도 순천에 유배되었을 때 그곳에서 지은
「만분가(萬憤歌)」가 효시로 알려져 있다.

귀양살이는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유배가사
는 흔히 자기의 무죄함을 토로하는 동시에 정적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
고, 그러면서도 오로지 임금에게만은 일편단심을 표출하는 충신연군가
(忠信戀君歌)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조선조 양반치고 유배를 안
가본 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유배는 일반적인 형벌이었다. 유배형을 받
은 이 중에는 몸이 약하거나 유배 기간이 길어 유배지에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장소를 바꿔가며 유배를 여러 차례 간 경우도 있었다. ‘文’을
통해 벼슬길에 올랐으므로 유배지에서 글을 쓰는 것 외에 달리 할 일도
없었던 바, 죄인들은 유배지에서 가사를 지으며 외로움을 달랬다. 수많
은 유배가사가 이런 이유로 탄생하였다. 중국에는 유배시가 많은데 비
해 우리나라는 유배가사가 많은 점이 다르다.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이 북벌에 나서기 전에 화근을 없애고자 위
나라의 사마의를 책략을 써 귀양 보내는 대목이 나온다. 제갈량이 마속

을 시켜 거짓소문을 퍼뜨리자 위의 황제 조예는 이를 믿고 사마의를 서
량 땅에서도 오지로 유배를 보낸다. 사마의는 제갈량의 꿩꿩이속을 알
고 있었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노심초사, 해배(解配)의 사령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때 쓴 시가 전해지고 있다.

잇고 있었다
내가 유배 중이라는 것을
자유도 사랑도 꿈꾸지 말고
고스란히 앉아서
세월만 삭혀야 하는 죄인임을
잇고 있었다

흰 돛단배 한 척 닿았기에
해배의 사령이 온 줄 알고 달려나갔더니
먼 바다 나가는 고깃배란다
무슨 죄를 지었냐고
어부가 물기에
들어보겠냐고 했더니
갈길 바쁘다고
손 저으며 하는 말이
관상을 보니 죽어서나 해배될 것 같다 한다

- 「유배시」 전문

사마의가 얼마나 간절히 해배의 사령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초조

함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결국 사마의는 해배가 되어 다시 권력을 손에 넣은 뒤에 제갈량을 오장원 전투에서 사지로 몰아넣음으로써 유배를 보낸 데 대해 복수를 한다. 우리 고전 작품 가운데 유배를 가지 않았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작품들이 있다. 유배를 갔던 본인은 실의와 고난에 찬 나날을 보냈을지라도 우리 문학은 유배형의 덕을 본 바가 없지 않다. 또한 본고는 유배를 당한 이들이 유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여 시를 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인들이 유배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시를 썼는지가 이해의 초점이 된다.

2. 신춘문에 당선작에서 시작되는 국내의 유배시

이 땅의 시인들 중에 억울하게 귀양살이를 했던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삼아 시를 쓴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작품은 1984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인 오태환의 「崔益鉉」이 아닐까 한다. 최익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항일의병운동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대마도로 유배를 가, 그곳에서 죽은 구한말의 애국지사다.

엎드려서 울고 있다
 낮게 내려앉은 대마도의 하늘
 성긴 눈발, 축계
 뿌리고 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서릿발 같은 바람소리만
 어지럽게 쌓이는

나라의 산하(山河)

불끈 쥘 두 주먹이 붉은

얼굴을 감춰서

설악(雪嶽) 같은 울음이 가려지겠느냐

파도 같은 분노가

그만 가려지겠느냐

어둡게 쓰러지며 울고 있다

희디흰 도포자락

맑게 날리며

성긴 눈발, 뿌리고 있다

눈감고 부르는

사랑이 무심한 시대에

하염없이 하염없이

- 「崔益鉉」 제1연

최익현은 유배지에서 지급되는 음식물을 왜적이 주는 것이라 하여 거절, 단식을 계속하다가 유소(遺疏)를 구술, 부하로서 같이 대마도 유배를 와 있던 임병찬에게 초하여 고종에게 올리게 했다. 나중에 조선에서 가져간 음식 재료로 차린 밥상을 받고서야 단식을 중단했으나 곧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태환의 「崔益鉉」은 유배지에서의 최익현의 모습을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발표 시기가 마침 5공 정권이 서슬 퍼르게 총칼을 휘두를 때라 다분히 정치적인, 시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구를 이끌고 몸소 실천하다가 대마도에서 단식투쟁 끝에 죽은 애국지사의 절개가 느리면

서도 굵고, 섬세하면서도 위풍당당한 남성적인 톤에 실려 잘 나타나 있다.

최익현은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인물이었고, 시인은 바로 이 점을 중시하였다. 최익현은 1868년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에 따르는 재정의 파탄 등을 들어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상소하여 관직을 삭탈당했다. 하지만 대원군은 최익현으로 말미암아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아들 고종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정사에 일일이 간섭하던 대원군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고종이 최익현의 상소문을 핑계로 아버지를 축출해버린 것이다. 이후 최익현은 일본과의 통상조약과 단발령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북 태인에서 의병운동을 일으켰으나 순창에서 패하여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오탈환은 이런 인물을 높이 기리는 시로 등단을 한 것인데, 이 시는 신춘문예의 유행을 가져와 그 다음해에도 한국일보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을 다룬 시를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뽑았다.

第一信

아직은 미명이다. 강진의 하늘 강진의 별판 새벽이 당도하길 기다리며 죽로차(竹露茶)를 달이는 차운 계절, 학연아 남해 바다를 건너 우두봉(牛頭峰)을 넘어오다 우우 소 울음으로 몰아치는 하늬바람에 문풍지에 숨겨둔 내 귀 하나 부질없이 부질없이 서울의 기별이 그림고, 흑산도로 끌려가신 약전 형님의 안부가 그림다. 저희들끼리 풀리며 쓰러져 가는 얼음장 밑 찬물 소리에는 열 손톱들이 젖어 흐느끼고 깊은 어둠의 끝을 헤치다 손톱마저 다 닳아 스러지는 적소(謫所)의 밤이여, 강진의 밤은 너무 깊고 어둡구나. 목포, 해남, 광주 더 멀리 나간 마음들이 지친

봉두난발(蓬頭亂髮)을 끌고 와 이 악문 찬 물소리와 함께 흘러가고 아득하여라, 정말 아득하여라.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미명의 저편은 나의 눈물인가 무덤인가 등잔불 밝혀도 등뼈 자옥이 깔고 가는 바람 소리 머리 풀어 온 강진 별판이 우는 것 같구나.

- 정일근,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 전반부

이 시는 천주교 박해 사건(신유사옥) 때 천주교도로 몰려 전남 강진 등지에서 무려 18년이나 유배생활을 한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 실학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약용의 편지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유배지에서 그의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27통을 비롯하여 아들에게 내려주는 교훈 9통, 형에게 보내는 편지 14통,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11통 등 모두 61통이다. 이 편지들이 박석무에 의해 수집·정리되어 1979년 시인사에서 간행되었는데 정일근은 이 책을 구해본 것 같다. 애국지사의 불굴의 의지가 우리나라 겨울 산천의 풍경에 빗대어 웅장하게 전개되는 「崔益鉉」에 비해 이 시는 정약용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흑산도로 귀양을 간 작은형 약전의 안부를 궁금해 하다 뒷부분에 가서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이며 한이라는 것도 속절이 없어 첫해에는 산이라도 날려 보낼 것 같은 그리움이, 강물이라도 싹둑싹둑 베어버릴 것 같은 한이 폭설에 갇혀 서울로 가는 길이란 길은 모두 하얗게 지워지는 밤”이라고 하며 그리움과 한에서도 어느새 벗어나,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들려주기도 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오히려 세상을 보는 혜안을 갖게 되었으므로 유배라는 고난이 정약용을 더욱 큰 인물로 만든 동인이 되었음을 시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유배를 간 인물에 대한 시적 형상화는 90년대 신춘문에 당선작에도 이어진다.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유배시첩-남해 가는 길」은 김만중이 마지막 유배생활을 한 경남 남해의 노도(櫓嶋)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김만중은 함경도 선천에서 3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는데 숙종의 미움을 사 또다시 노도로 유배를 갔다. 그 사연을 약술하면 이렇다.

김만중은 자신과 같은 당파인 서인 김수항(영의정)의 아들 창협이 비위 사실에 연루되어 처형을 받게 된 것을 보다 못해 이를 부당하다고 상소했다가 선천으로 유배되었다. 3년 뒤에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몰락할 때 노도로 다시 유배를 갔다. 기사환국은 숙종이 많은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숙원 장씨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禧嬪)으로 삼은 데서 시작되었다. 이 일을 두고 송시열이 나서서 격렬하게 반대하자 숙종은 서인의 대표자격인 송시열을 사약을 내려 죽이고, 이를 공격한 김만중 등 서인을 탄핵, 유배를 보낸 사건이 기사환국이다.

물살 센 노랑해협이 발목을 붙잡는다.
 선천서 돌아온 지 오늘로 몇 날인가
 운삼월 젖은 흙길을
 수레로 천리 뺏길 시오리
 나루는 아직 닿지 않고
 석양에 비친 일몰이 눈부신데
 망운산 기슭 아래 눈발만 차갑구나
 내 이제 바다 건너 한 잎

꽃 같은 저 섬으로 가고 나면
따뜻하리라 돌아올 흙이나 뼈
땅에서 나온 모든 숨쉬는 것들 모아
화전을 만들고 밤에는
어머님을 위해 구운몽을 엮으며
꿈결에 든던 남해바다
삿갓처럼 얹드린 앵강*에 묻혀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으리.

* 앵강 :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 남해 앞바다 이름

- 「유배시첩 1-남해 가는 길」 전문

고두현은 김만중이 유배지인 남해로 가는 여정에 시의 초점을 맞추었다. 수레로 천리이고 다시 시오리 뱃길로 가야 하는 남해까지의 긴 여정을 눈에 보일 듯이 그려나간 뒤에 화전을 일구는 등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시의 후반부로 삼았다. 김만중은 남해 노도에서 「구운몽」 「서포 만필」 「사씨남정기」 등 대표작들을 집필하였다. 유복자로 태어나 효도가 지극했던 김만중은 어머니 윤씨를 위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시에도 그 내용이 나온다. 그해의 신춘문에 당선작은 2편이었는데 아래 고두현의 시도 김만중의 유배지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

흐린 날에 텃밭에 나가
익모초잎을 따다
초막 뒤로 지는 노을

시린 팔목도 굽은 어깨도
 진눈깨비에 젖어 흐르다 보면
 못다한 이승의 아름다움
 꽃대궁 뿌리마다 단단히 박아두고
 어즈버 내가 없는 날
 봄 푸른 들판 되어
 꽃피고 새움이 돌듯 그렇게
 다시 살았거라 두고 온 것들도 수런대며
 돌아와 뒤뜰 동백넝 함께 아물어 갈 때
 일어나 터지거라 터지고도 모자라면
 또 다시 누워 채마밭이 되고 새암이 되고
 먼 데서 오는 한 벗 구름뿐인 고요가 되고
 슬픔이 되어 내 문힌 노지나 묘등에
 땅만 보고 섰을 풀줄기 되라

- 「유배시첩 2-울타리 밖에 채마밭을 짓고」 전문

고두현은 김만중을 시적 화자로 삼아 유배지에서의 일상을 그려나간다. 김만중은 이곳에서 자기가 파놓은 웅달샘의 물을 마시고, 솔잎 피죽을 먹으며 근근이 연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쓰기에 매진하느라 농사일은 제대로 하지 않아 생활이 몹시 곤궁했다 하고, 고생이 심해 유배지에서 56세를 일기로 죽었다. 얼핏 보면 유유자적, 안빈낙도를 즐기는 선비의 일상 같지만 고졸한 슬픔이 느껴진다. 권좌에서도 밀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현재의 생활은 고달프기 이를 데 없었다. 바로 그런 김만중의 쓸쓸한 마음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다. 고두현은

첫 시집 「늦게 온 소포」(2000)에 ‘유배시첩’ 몇 번이라고 부제로 붙인 시를 모두 7편 신는데 3번 시를 보자.

동물 끝 바위 갈매기 한 쌍 닿았구나.
벼랑 아래 끊임없이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
눈에 뵈 면하면 멀어지고
나랏님 열두 번 벼슬
때마다 사양하고 혼자 예 앉으니
망망한 대해가 내게로만 무너지네.
어지러운 잡풀 사이
소나무처럼 우뚝 선 새
해풍에 상하지 않을까
밤이 되면서 근심이 깊어졌다.
물소리 쿵쾅이는 잠 속에서도
새는 떠나지 않고
부리만 갈고 있다.
속절없이 웅승거리는 바람 따라
하얗게 일어서는 저
뼈, 흑한보다 더 시린
그대의 안부.

- 「유배시첩 3-안부」 전문

김만중은 숙종 때 여러 차례 벼슬을 제수 받았지만 불응하였다. 벼슬

을 좀 했다가 물러나고 또 제수 받았지만 응하지 않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기사환국 때 숙종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고서 유배를 가서 죽는다. 이 시는 열두 번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거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적 화자가 김만중이므로 마지막 행의 ‘그대’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나랏님이다. 그런데 고두현은 김만중의 연군지정을 다루지 않는다. “물소리 쿵쾅이는 잠 속에서도/ 새는 떠나지 않고/ 부리만 같고 있다.” 같은 시구를 통해 시인은 김만중이 노도에서 한양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적어도 김만중은 임금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유배지에서 ‘님 향한 일편단심’을 노래한 이가 아니라고 고두현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시인은 김만중의 고난에 찬 생애를 떠올리면서 그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를 7편 지어 영전에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시를 보면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천석고향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도 이는 바다를 보며 외로움과 서러움, 분노와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추사 김정희가 유배지 제주도에서 그린 「세한도」가 지금껏 전해져서 그런지 이 땅의 수많은 시인이 「세한도」를 갖고 시를 썼다. 이근배는 『시로 그린 세한도』를 편하면서 53인의 시를 수록하였다. 이 가운데 199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박현수의 「세한도」를 보자.

1

어제는

나보다 더 보폭이 넓은 영혼을

따라다니다 꿈을 깬다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를

나는 눈물로 따라갔지만
어느새 홀로 빈 들에 서고 말았다
어혈의 생각이 저리도
맑게 떠오르던 새벽에
헝크러진 삶을 쓸어들리며 나는
첫답처럼 잠을 깬다

누군 핏속에서
푸르른 혈죽을 피웠다는데
나는
내 핏속에서 무엇을 피워낼 수 있나

- 「세한도」 전반부

이 시의 시적 화자를 시인 자신으로 볼 수도 있고 김정희를 생각하는
가공의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아무튼 ‘나’는 나보다 보폭이 더 넓은 영
혼인 김정희의 영혼을 따라다니다 꿈을 깬다고 한다. 김정희는 겨울 소
나무의 곳곳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마음을 모아 「세
한도」를 완성하는데 화자는 예술 창조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을 자성한다. ‘瘀血’과 ‘血竹’이 상징하는 것은 인고의 나날에 이루어
낸 뛰어난 예술적 승화이다.

2

바람이 분다
가난할수록 더 흔들리는 집들

어디로 흐르는 강이길래
뗏속을 타며
삼백 예순의 마디마디를 이렇듯 저미는가
내게 어디
학적으로 쓸 만듯한
뼈 하나라도 있던가
끝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더미 같은 나는
스무 해 앞은 물가에서
빛 좋은 웃음 한 줌 건져내지 못하고
그 어디
빈 하늘만 서성대고 다니다
어느새
고적한 세한도의 구도 위에 서다

이제
내게 남은 일이란
시누대처럼
야위어가는 것

- 「세한도」 후반부

박현수는 김정희의 「세한도」 그림에 빗대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추해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위도식이었고 무사안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한도」 그림의 정신을 본받아 이제부터라도 견인불발의

정신을 견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시는 끝난다. 이 시에서 「세한도」 그림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이해, 혹은 김정희의 유배 생활에 대한 고찰은 별반 보이지 않는 반면 그 그림에 담긴 정신을 본받겠다는 자기반성과 성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근배가 편한 『시로 그린 세한도』에 나오는 시 중에는 유배객 김정희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한 고찰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논하고자 한다.

3. 2000년대 유배시의 면모

이상 4명 시인의 등단작은 이 땅의 시인들에게 유배객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갖게 한다. 그래서 2000년대에도 일종의 유배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4편의 시는 뒤에 나오는 유배시들의 전범의 역할을 한다. 즉,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이후의 시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공광규도 김만중의 유배생활이 이르렀으리라 상상하며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갯가 푸조나무 아래서 가을단풍을 등불삼아
향교에서 빌려온 「주자어류」를 읽다가 내려놓고
통무를 넣고 끓인 물메기국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해안을 한참 걸어가 만난 곳이 지족해협이라던가
연을 날리는 아이들과
굴과 계와 조개와 멧계를 건지고
갈치와 전어와 주꾸미를 잡는 노인들을 만나
이곳 풍물을 문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갈대를 엮어 올린 낮은 지붕에는
 삶은 멸치들이 은하수처럼 반짝거렸는데
 떼 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용과 같더군요
 아하, 이곳에서는 멸치를 미르치라 부른다는데
 미르라고 부르는 용의 새끼가 미르치 아닐는지요
 미르라고 부르는 은하수 또한
 이곳 바다에서 올라간 미르치의 떼가 아닐는지요
 참나무 말뚝을 박은 죽방렴 아래에서는
 남정네들이 흙탕물에 고인 멸치를 퍼 담고 있었습니다.
 흙탕물 바가지에 담긴 멸치들을 보면서
 인간의 영욕이라는 것이 밀물 썰물과 다르지 않고
 정쟁(政爭)에서 화를 당하는 것은 빠른 물살을 만나
 죽방렴에 갇히는 재앙과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삶기고 말라가는 지붕 위의 멸치와 다름이 없는 이 몸은
 남해의 물을 다 기울여도 씻지 못한 누명이거늘*
 오늘 밤,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이 그리울 뿐입니다.

* 「사씨남정기」 구절에서 인용

- 「지족해협에서-유배일기 1」 전문

공광규는 김만중이 일기를 쓰는 것처럼 구성하여 시를 써나가고 있다. 즉, 시적 화자가 김만중이다. 공광규는 김만중이 어느 날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지족해협에 나가 바닷가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을 거라 상상하고는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처음에는 시가 안빈낙도의 분위기

로 전개되지만 후반부로 가서는 정쟁에서 화를 당하는 것은 “빠른 물살을 만나/ 죽방렴에 갇히는 재앙”과 같다고 하면서 김만중의 억울한 처지를 밝힌다. 죽방렴은 꽤나 원시적인 고기잡이 방법이다. 대나무와 같은 재료로 밧을 엮어 울타리를 만들어, 고기가 들어올 때는 자유롭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에는 퇴로를 차단하여 달아나기 어렵도록 하여 어획하는 것이다. 남해 지족해협은 전국에서 진도 울돌목 다음으로 물살의 흐름이 빠르고 수심도 깊어 천혜의 죽방렴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공광규는 김만중이 살아 있을 때도 어부들이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았을 거라 추측하여 이렇게 썼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김만중 자신, 움 짝달짝 못하게 된 고기 신세가 되었음을 시인은 암시하고 있다. “삶기고 말라가는 이 몸”은 “남해의 물을 다 기울여도 씻지 못한 누명”이라고 하면서 김만중이 되어 분노를 터뜨리기도 한다. ‘일기’는 누가 볼 것을 예상하고 쓰는 것이 아니다. 죽는 날까지 나만 볼 글이라고 생각하며 쓰는 것이므로 시인은 일기 형식을 통해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를 유추하여 이렇게 적나라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샷갓으로 덮으면 안 보이는 작은 눈도 있다는
가천 다량이 눈에 가을 물이 들자
설흘산이 색동 비단을 두르고 호강을 합니다
백성의 억척으로 호강하는 것이 설흘산뿐이겠습니까만
설흘산은 이웃 응봉산과도 사이가 좋아
수천수만 년을 살붙이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곳 남해에 있는 섬 하나는 물이 들면 멀어지고
물이 나면 바다가 길을 놓아 한 몸이 된다는데
부인은 천리 먼 구름 끝에 있으니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합니다.

- 「가천 유감-유배일기 2」 전문

설흥산과 응봉산은 모두 경남 남해군에 있다. 두 산이 정답게 마주보고 있는데 유배를 간 김만중은 부인과 생이별하여 마음이 아팠다. 조석간만의 차로 바닷길이 열려 섬까지 갈 수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여러 개 있는데 ‘남해에 있는 섬 하나’는 소매물도와 등대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물이 나면 바다가 길을 놓아 한 몸이 된다는데” 김만중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아내가 해준 밥도 먹어보지 못하고, 끝내 유배지에서 숨을 거둔다. 공광규는 이렇듯 김만중이 가슴에 품었을 회한에 초점을 맞춰 시를 쓰고 있다. 공광규의 시는 고두현의 시와 세 가지 점에서 닮았다. 고두현은 시의 부제로 ‘유배시첩’을 쓰고 있는데 공광규는 ‘유배일기’를 쓰고 있다. 시적 화자를 김만중으로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나가는 식으로 전개하는 것도 비슷하다. 남해의 아름다운 풍광 묘사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한 것도 비슷하다. 이런 외양은 비슷하지만 시의 내용, 즉 주제는 다르다. 고두현은 김만중의 대결의식 혹은 저항의식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광규는 유배지 생활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시를 전개해나간다.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나 다시 조정에 나아간다고나 하는 희망을 버리고 유배지에서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호호하며 살아가는 김만중의 일상 모습을 시인은 그리고 있다.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잘 파악하게

되었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 유배지에서
의 생활은 실상 많이 고달팠겠지만 시인은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김만중의 민중지향의식을 높이 사고 있다.

뗏목뒹배는 떠나고
노을과 물보라가 섬을 지우면서
칼에 찢린 것처럼 통증이 인다
선천에서 돌아온 날이 바로 엇그제인데
내 오늘 머리 허연 죄수가 되어
또 피눈물의 앵강*을 건너왔구나
노모老母와 오래 살기를 원했는데
이젠 어느 시절 돌아가 함께할 거나
입은 있으나 입이 없는 것처럼
대숲 흔들리는 길을 휘청휘청 올라간다
쑥부쟁이 구절초 환삼덩굴이
줄지어 서서 남루한 행색을 받아주지만
이젠 숨을 곳조차 없는 낭떠러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벼랑 끝이다
견뎌야 한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눈 감지 마라, 사방이 탕자나무가시다
침묵의 하루하루가 입 벌리고 기다리는
초옥草屋 가는 길, 자벌레같이
꿈틀꿈틀 기어가는 이 목마름
비린 바람만 사방에서 불어온다

뱃멀미에 납작해진 나는
벌써 탱자나무가시에 몸이 찢려서
울컥, 마른 통증을 다시 앓는다

* 앵강 :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 남해 앞바다 이름

- 「초옥 가는 길-노도에서 띄우는 편지 1」 전문

임동윤도 시적 화자를 김만중으로 삼고 있다. 시의 부제를 ‘노도에서 띄우는 편지’ 라고 했지만 편지보다는 일기에 가깝다. 편지든 일기든 앞서 시를 썼던 정일근이나 고두현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 전개 도중에 화자가 “눈 감지 마라, 사방이 탱자나무가시다” 하면서 시인 자신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뱃멀미에 납작해진 나”는 김만중이기도 하고 임동윤이기도 하다. 시인 자신이 김만중과의 동일시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생활이 곤궁하고 심신이 다 아픈 유배지에서도 위대한 작품을 썼던 김만중에 대한 존경심이 낳은 시편이다. 작품은 어느 정도 품격을 지니고 있지만 앞서 나왔던 유배시들과 별 다를 바 없기에 큰 울림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이 시의 아쉬운 점이다.

유배객들에 대한 시는 최근까지도 발표되고 있다. 성국희는 김정희를, 김명희는 단종과 윤선도를 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모두 유배를 갔던 인물이다.

유년으로 가는 길은 안으로만 열려 있다
지나온 시간만큼 덧칠당한 흠먼지 길,

낮아진 돌담 사이로 먹물 자국 보인다

푸르게 날 선 침묵, 떨어오는 숨결이여
긴 밤을 파고드는 뼈가 시린 그리움은
한 떨기 묵란墨蘭에 스며 향기로 깊어졌다

허기진 어제의 꿈 은밀하게 달래가며
빗장 풀어 발 들이는 적막의 뒤란에는
낮달에 비친 발자국, 추사체로 다가선다

- 「추사 유배지를 가다」 전문

2011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시조 당선작이다. 성국희 시인은 추사 유배지 어느 곳에 가서(어디인지 작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추사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생각해본다. “덧칠당한 흙먼지 길”이라던가 “푸르게 날 선 침묵”, “뼈가 시린 그리움”, “적막의 뒤란” 등이 상징하는 것은 김정희의 고난과 인내심이다. 오로지 붓으로써 유배지로 가는 길, 또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이겨내는 김정희의 인고의 의지를 높이 사고 있다. 단형시조 3개가 모여 이뤄진 시조인데, 워낙 많이 압축되어 있어 추사의 정신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추사 유배지가 한두 군데도 아니었고, 유배지의 정서도 유배객의 심사도 도무지 드러나 있지 않다. 유배지에서 ‘추사체’를 이뤄내는 분위기만 느껴질 뿐 구체성이 전혀 없이 전개되기에 시가 막연하고 애매하다.

2006년 한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명희는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에 들러 시상을 떠올린다.

비극은 이 섬의 반대편, 궁궐에서 출발했다
 복사꽃 봄 풍경마저 부복을 하던 남다른 신분은
 이 섬의 반대편, 처마 밑에서 시작되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영욕을 몸 속 깊이 통과시킨 운명 앞에
 사철 천진하게 흘러온 강물도 이곳에 이르러서는
 한 번씩 비극에 몸 적시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
 저 물속에선 아직도 유배의 비극이 끝나지 않은 것일까
 치어 떼들만이 모천을 잃은 채
 어가의 한 기슭을 글썽글썽 헤맬 뿐,
 그 어디에도 애사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어찌려고 이 여행은
 유배 입구까지 역류해서야 자유로워지는 걸까
 아직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다
 이곳의 슬픔이 어느 쪽을 향하여 눈물을 배웠는지
 이곳의 슬픔이 어느 산그늘에 제 뼈를 묻었는지

단종 유배지에 들렀다
 예나 지금이나 기쁨은 이 섬의 뒤편이 아닌지
 세상의 모든 웃음들은 물 바깥에서 더욱 반짝이고
 단종 어가에 들러 또 한번
 슬픔의 또 다른 사막을 짐짓 디더 본다.

- 「유배지에서」 전문

김명희는 어린 단종이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기까지 온 것을 ‘비극’과 ‘애사’로 간주하고 있다. 시인은 청령포 유배지에 와서 단종의 흔적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죽은 단종에 대한 동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시인의 유배지에서의 감회야 남다를 수 있지만 시가 시인 자신의 감상(感傷)에 경사되어 전개됨으로써 감동의 약화를 가져온 것은 아쉬운 점이다. 시적 대상이 지닌 역사적 비극성에 함몰되면 시는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열여섯 어린 소년을 외판 섬으로 귀양 보내고 결국 죽이는(자살설과 타살설이 있다) 당쟁에 대한 냉정한 비판의식 같은 것도 곁들여졌더라면 비극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김명희는 또, 보길도로 유배를 간 윤선도도 시적 대상으로 삼아보았다.

마을에는 아직도

한 번 붙들리면, 몬스터처럼 변신하는 낯은 미장월이 있다

공터 한켠엔 수많은 삶을 지탱해주던 배들이

폐가처럼 기울어 가고

외로운 사람들은 한두 개의 습관을 문신처럼 안고 산다

몇 해 전 해남집 여자와 어느 사내에 대한 소문이

아직은 물으로 떠나지 못한 듯,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몇 번의 태풍이 사나웠고

몇 번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또한 그러했다

소금기에 절은 간판들은

누군가의 마지막 밤을 떠올리듯 쉽사리 바뀌지 않고

어딘가 잘 떠오르지 않는 생각의 원시안 속으로
저녁 해가 진 건 아주 우연한 일일뿐
이곳에선 해가 뜨고 지는 일이 배가 드나드는 일보다 흔하다

뜻이나 전북 이곳의 명물은 그러나, 유배다
욕망들의 유배지이며 그리움들의 유배지다
그리하여 세상의 눈 밝은 고기들은 이곳을
들르는 일이 적고
누군가 건져 올린 풍어 소식도, 간밤의 꿈일 때가 많다
보길도,
나는 그 유폐되기 좋은 섬을 빠져 나오며
나 자신에게 묻는다

다시는 내 그리움의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 보길도 : 고산 윤선도가 유배되어 생을 마친 섬.

- 「보길도」 전문

이 시는 앞서 살펴보았던 시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과거의 유배지가 아니라 현재의 유적지를 다루고 있다. 윤선도의 유배지에서의 삶이나 윤선도가 가슴에 품고 있었을 한은 시의 전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김명희는 보길도라는 섬 자체의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시를 써나간다. 그러다 제2연에 접어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시인은 보길도가 남해(전남 완도 쪽)에 있는 섬 가운데 하나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선도의 ‘유배’ 자체가 이 섬의 명물이라고 한다. “육망들의 유배지이며 그리움들의 유배지다”라는 것은 “유폐되기 좋은 섬”에 와서 김명희 시인이 느낀 동질감이 만들어낸 멋진 표현이다. 이런 시를 보면 오늘날에는 유배지 배경의 시라고 해서 반드시 유배객의 고난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 유배시의 앞날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 땅의 유배객 소재의 시는 대다수 서사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서정성이 짙다. 역사의 아픔을 일깨우면서 현대적 삶의 반성을 촉구한다. 왕조시대 때 사대부 계급은 대체로 정치적 인 이유로 유배생활을 했으므로 유배가사는 자기의 무죄 주장과 정적에 대한 원한,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을 표출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현대의 유배시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고 유배지로 가는 동안의 견문이나 유배지에서의 생활상 등에 초점을 맞춰 기행가사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의 정치에 불만을 가진 귀양객이 저항의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한양에 있을 때는 양반 사대부로서 살아갔지만 유배를 와서는 백성들과 어울려 지내게 됨으로써 진정한 민중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오탁환의 「崔益鉉」 이후 이 땅의 시인들은 역사의식을 겸비한 사회참여시의 일종으로 유배객 소재의 시를 썼던 것이다.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을 비롯하여 조선조 때의 유배가사는 엄청나게 많다. 유배객의 수도 엄청나게 많다. 그러므로 유배객을 소재로 한 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여 편

의 시는 각각 닭은꼴이다. 당쟁의 화를 입어 억울하게 유배생활을 하는 유배객에 대한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유배객 소재의 시는 이제 흔해져 시다운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21세기인 지금, 유배객 소재의 시가 새로운 시적 의미를 확보하려면 또 다른 시각과 시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명희의 「보길도」는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회고지정에 사로잡히거나 유배객들을 동정하는 시선에 머물 경우 동어반복을 함으로써 시적 실패를 볼 수도 있다. 온고지신의 정신에 입각하여 쓴 보다 참신한 유배 소재 시의 창작을 기대해본다.